

# 「한전 맨홀 용역 감사제보」 조사결과

- '22. 7. 27(수) -

## □ 조사배경

- 감사원에서 한전 \*\*지사의 용역입찰 시 특정기업 특혜부여 의혹 등 관련 제보를 우리부에 이첩하여 온 바, 이에 대해 조사 실시
  - 사전고지 없이 입찰규격 시방서 변경, 입찰공고 수질기준과 달리 자격심사, 특정업체 위주 낙찰 및 특혜부여 등 의혹 제기

## □ 조사개요

- (기 간) 2022. 6. 23. ~ 6. 30.(목) (6일간)
- (조사자) 000事 (1명)
- (조사내용) 특혜부여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
  - 특혜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규정 위반 여부 등

## □ 조사결과

- 지사에서 본사 시방서의 강제적용 규정도 없으며, 본사에서 기술 규격을 제시하면서 시방서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와 신기술 적용시 입찰공고 참고용도로 시방서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, 지사에서 수질 기준을 추가한 사실만으로 위법·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
- \$\$지사 등 10개 지사는 방류 수질기준 7개를 공고하고 이중 5개 만 심사한 것으로 확인. 입찰 공고의 수질기준과 달리 자격 심사 한 바, 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부적정
- 유착이나 특혜의 증거는 불분명하고 10개 지사가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부여할 동기나 정황도 불분명

## □ 조치결과

- 자격 심사 부적정 및 체계적 관리 부재에 대해 '기관주의' 처분
-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 시방서 등 사업을 체계 적으로 개선요구